LG-D, 중국에 TV 합작기업 설립

TPV와 TV·모니터 제조 협력 … LCD 모니터·TV 800만대 생산

LG디스플레이는 최근 중국의 세계 최대 TV 아웃소싱기업 TPV와 TV·모니터 사업 합작기업 L&T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.

TPV는 세계 OEM(주문자상표부착방식) 생산 TV 시장에서 20%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.

LG디스플레이와 TPV는 51대50으로 푸젠성 샤먼 및 푸칭에 L&T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를 설립함으로써 모니터용, TV용 LCD(Liquid Crystal Display) 모듈과 세트제품의 위탁생산해 판매하게 된다.

L&T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는 LCD 모니터와 TV 등을 포함해 연간 800만대 정도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.

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"안정적으로 패널을 판매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합작기업을 설립했다"며 "Low-End(저사양 제품) 제품 위주로 위탁 생산하게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LG디스플레이는 2008년 10월 타이완 TV 생산기업 암트란과 제휴해 중국 쑤저우에 LCD 모듈, TV 아웃소싱기업 Raken을 설립해 연간 400만대의 TV를 비지오 등에 공급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1/18>